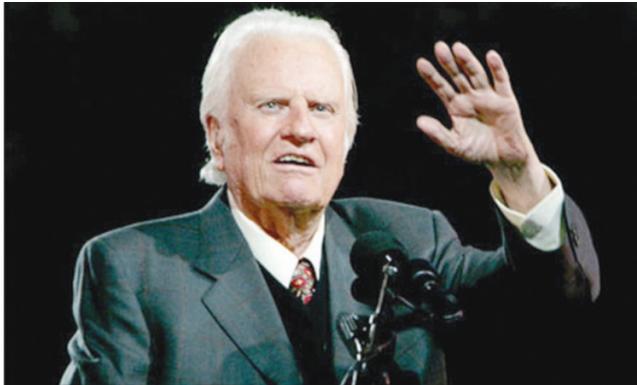


‘복음주의 대표’ 빌리 그래함, 99세로 별세

20세기를 대표했던 전도자, 한국과도 깊은 인연



생전의 빌리 그래함 목사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가 21일 99세로 소천했다. BBC와 NBC 등 외신들은 21일 현재 이를 일제히 속보로 보도하고 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마크 드모스(Mark DeMoss) 대변인은 “빌리 그래함 목사가 21일 오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의 집에서 사망했다”며 “그래함 목사는 암, 폐렴 및 기타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1918년 11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태어난 빌리 그래함 목사는 플로리다 성서신학교와 휘튼대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49년 LA 부흥 집회를 계기로 큰 성공을 거둔 후, 1950년 빌리그래함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를 창설하여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도에 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한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93년 한 해 동안에만 250만명 이상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전한다. 총 185개국 22억여명에게 복음

을 전했다. 특히 TV와 위성방송, 비디오와 영화, 인터넷 등 발전하는 매체들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로잔운동 등 전 세계 복음주의 연합 운동에 앞장섰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서로는 마지막 메시지로 알려진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를 비롯해, <새로운 도전>, <인생>, <천사, 하나님의 비밀>, <빌리 그레이엄의 소망>, <사랑하라 너무 늦기 전에>, <마지막 설교> 등이 있다.

그는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1952년 한국전쟁 때 한국을 방문해 서울과 부산에서 집회를 열었고 1973년 여의도에서 100만 성도가 참여한 전도 집회를 열어 한국교회의 부흥에도 크게 기여했다. 1992년과 1994년에는 북한을 방문한 바도 있다. 또 전 세계 한인들의 선교 축제인 한인세계선교대회(KWMC)를 적극 후원하며 1988년 시카고 헛튼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대회 때부터, 당시 미국 비자 발

급이 어렵던 한인 선교사들의 미국 방문을 적극 돕기도 했다.

한편, 그래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내 아버지인 빌리 그래함 목사가 내게 ‘천국이 어디?’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요. 나도 곧 그에게 갈거야’라고 스스로 답하셨다”며 “오늘 아침, 그는 99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가셨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약 8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나를 비롯한 가족들은 물론, 동료들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버지는 주님의 품 안에서 어머니와 다시 만나실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실 것”이라고 전했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소천하기 전날인 20일, 그의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그는 “만약 당신이 숲으로 걸어 들어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 가시나무와 덩굴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자신을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길을 만든 이를 비난할 것인가? 물론 당신 자신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을 때 일어나는 일과 같다. 한동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이전에 비해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엔 가시덤불 속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OC목사회가 원팔연 목사를 초청해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의지하라

OC목사회, 원팔연 목사 초청 부흥성회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회장 남상국 목사)가 전주 바울교회를 은퇴한 원팔연 목사를 초청해 3일간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다.

16일(금) 오후 7시에는 풀러튼영락교회(담임 유의상 목사), 17일(토) 오후 7시에는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 18일(주일)에는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오전 7시 30분과 9시 30분에 각각 집회가 열렸다. 둘째날 집회에서 원목사는 “굳건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면서 “성령충만한 신앙”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46년 목회 경험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

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세에 쾌락이나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 집회에서는 특별히 남가주목사회장로찬양단과 전재학 목사가 각각 특송을 해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1982년 창립된 바울교회는 1985년 원팔연 목사가 부임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최초로 성도 1만 명 시대를 열었고, 등록 성도 1만3천여 명으로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가 됐다. 원목사는 신용수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한 후, 조기은퇴했다. <관련기사3면>



돼지저금통에 저축했어요!

한인가정상담소와 뱅크오브호프가 지난 14일 동양선교교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들은 설날을 기념해 선생님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실습을 한 후, 돼지저금통도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가정상담소 사진 제공

여러분의 도우미
카카오 렌트카가 있습니다.
 급하게 차가 필요하신가요?
 KOREA TOWN
877-251-4489
CACAO RENTAL CAR
 286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크레딧 카드 없는 분
- 국제운전면허증
- 타운 내 공항 픽업
- 장기 렌트카
- 보험청구 렌트카
- \$18/일, \$350/월부터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Oxford Ave.
 Pico Blvd.
 Serrano Ave.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삼일절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 ◎3월 2일(금) 오전10시
- ◎강사: 피종진 목사
- ◎장소: 로텍스 호텔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한인 히스패닉 연합성회

- ◎3월 3일(토) 오후 6시
- ◎강사: 피종진 목사
-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삼일절 기념 연합예배

- ◎3월 4일(주일) 오후 4시 30분
- ◎강사: 피종진 목사
- ◎장소: 미주평안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사모 힐링 캠프

- ◎3월 5일(월)-7일(수)
- ◎간증:신애라 집사
- ◎장소: Lake Arrowhead

※사모힐링 캠프에 참가하실 사모님들은 신청해주시요

- 자격: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사모님 (25명)
- 신청: 최다니엘 목사 (562)754-2656
 dcdanie@gmail.com

- 첨부서류
 1)교회주보(사진파일)
 2)전화번호와 이메일
신청마감:2018년 2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서류 확인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를 후원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도네이션을 해 주십시오.(pay to order: SCKMA)

협찬

FACE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Open Bank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샘 신 목사 | (213)215-6029
 총무: 양경선 목사 | (213)255-1725



1월 12일 제20기 Great Commission Training Center 훈련 졸업식이 있었다. 이 과정을 마치고 8명의 간사가 배출됐다.

“캠퍼스 사역의 동역자가 돼 주세요”

순 무브먼트 간사와 본부 사역 위한 기도 요청

미국 내 주요 5개 도시에서 60여 명의 간사들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순 무브먼트(SOON Movement, KCCC)가 간사들의 캠퍼스 사역을 위한 기도와 물질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故 빌 브라이언트 박사 부부에 의해 1951년 UCLA에서 시작된 CCC는 한국에서는 1958년故 김준곤 목사 에 의해 창립돼 한국 대학생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1971년 한국 CCC 간사들이 LA의 대학들에서 전도하면서 KCCC가 시작됐다. 그러던 중 2011년 미국 CCC와 국

제 CCC는 크루(Cru)로 단체명을 바꾸었고 2016년 KCCC는 그 이름을 순 무브먼트로 바꾸었다. 이미 유럽 CCC는 아가페, 동남아 CCC는 라이프 미니스트리, 캐나다 CCC는 파워 투 체인지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는 등 CCC 지부들이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지난 8년간 순 무브먼트를 이끌어 왔던 김동환 목사는 2017년 말경 사임한 상태이며 현재는 신임 대표 임명시까지 박종술 목사와 제니 박 간사가 임시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박종술 목사는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순수한 청년들의 운동이 초창기 부흥 때처럼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캠퍼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의 동역자, 기도의 후원자를 찾고 있다. 캠퍼스 사역을 하는 간사는 물론, 순 무브먼트 본부 사역도 기도와 물질의 후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문의) 213-389-5222

김준형 기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찬양하고 있는 가수 자두

‘무엇’ 보다 중요한 ‘왜’

미주복음방송 블레싱 콘서트 열려

미주복음방송(GBC)이 인기가수이자 목회자 사모인 자두를 초청해 블레싱 콘서트를 열었다. 14일 나성순복음교회, 16일 에브리데이교회, 17일 주님의영광교회, 18일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총 4번의 콘서트마다 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자두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자신의 신앙적 고민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큰 공감을 얻었다. 인기가수 시절의 정신적 불안감과 신앙의 갈등,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 등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는 목회자의 아내로 새로워진 모습이였다. 자두는 2013년 시애틀 출신의 지미 리 목사와 결혼했다. 리 목사는 현재 한국에서 영어권 교회를 섬기고 있다.

자두는 “사모가 된 후부터 ‘나는 가수인가? 사모인가?’로 많이 갈등했다. 하지만 믿음의 모습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교는 규칙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았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되어야 할 모습’을 먼저 생각하며 두려워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바라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했다. 이 콘서트에서 자두는 ‘함께 있으니,’ ‘온 땅의 주인,’ ‘주는 완전합니다’ 등 찬양과 함께 자신의 인기곡 ‘대화가 필요해,’ ‘김밥’도 불렀다.

이번 블레싱 콘서트는 창사 27주년을 맞이한 미주복음방송이 최초의 콘서트형 공개방송으로 준비했다. 콘서트 중 미주복음방송 아나운서들이 나와 방송 사역을 소개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시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미주복음방송은 이번 콘서트 수익금을 특과원 확충과 다음세대 방송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미주성결교회 LA 지방회장에 김종호 목사 선출

12일 제46회 미주성결교회 LA 지방회에서 회장에 김종호 목사(예향선교교회)가 선출됐다. 부회장은 한천영 목사와 최은호 장로, 서기에는 남성천 목사, 부서기에는 김시은 목사, 회계에는 이정신 장로가 선출됐다. ©지방회 사진 제공

남가주목사회 다양한 행사 준비 중

한-히스패닉 성회 및 삼일절 행사 등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 신 목사)가 삼일절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먼저 오는 3월 4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미주평안교회에서 피종진 목사를 강사로 삼일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직후인 5일부터 7일까지는 인기 배우 신애라 집사를 강사로 간증집회를 레이크 에로우 헤드에서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모 힐링 캠프에 참가하려면 사전 등록해야 하며 선착순이다. (문의: 562-754-2656)

이에 앞서 3월 2일(금) 오전 10시에는 피종진 목사를 강사로 LA 한인타운 로텍스 호텔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3일 오후 6시에는 역시 피 목사를 강사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한인-히스패닉연합성회를 연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불확실한 세상속의 합리적인 믿음

REASONABLE FAITH IN AN UNCERTAIN WORLD

AN NCA APOLOGETICS SERIES

Craig J. Hazen, Ph.D.

Christian Apologetics Program Director, Biola University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M.A.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B.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February 23, 2018
Friday, 7-9 P.M.

Sean McDowell, Ph.D.

Christian Apologetics Program Associate Professor, Biola University

Ph.D.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A. Theology, Talbot School of Theology

M.A. Philosophy, Talbot School of Theology

B.A. Biola University

Our Speaker Craig J. Hazen and Sean McDowell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E-NCA.ORG or Call 213.487.5437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인터뷰] 반 세기 목회 마무리 후 LA 집회 인도한 원팔연 목사

호남 지역과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 전주 바울교회를 목회해 온 원팔연 목사가 최근 LA를 찾아 은퇴 후 첫 번째 해외 집회를 인도했다. 그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OC목사회의 목회자 세미나와 부흥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교민들에게 많은 신앙적 격려와 도전을 전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원 목사는 중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의 길을 결단했다며, 자신이 실력도 언변도 부족했지만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해 오늘날의 부흥을 일굴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24세 때 여주 장풍성결교회를 시작으로 반 세기에 가까운 목회의 길을 걸어온 그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104년차 총회장, 서울신대 이사장, 우간다 쿠미대학(종합대학) 초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필리핀바울대학 이사장, 국가원로회의 부의장, 전북성지화추진위원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최근 정년을 1년 앞두고 조기 은퇴하며 교계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음은 원 목사와의 일문일답.

-46년간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은퇴하셨는데, 자신의 목회 인생을 돌아보신다면.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좋은 성도를 만났다. 많은 분들의 협력과 후원으로 명예로운 은퇴까지 하게 된 것이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새벽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했다. 그 후 그저 예배가 좋았고 예배에 미쳤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CCC 4영리 전도지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다.

늘 간증하지만, 저는 공부도 남들처럼 뛰어나지 못했고 불교 집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말도 어눌했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무능하고 가문도 학벌도 문벌도 좋지 않았고, 가정에서는 저를 핍박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다. 지금도 새벽 2시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것이 살아 있으면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교회는 안 된다.

-조기 은퇴를 결단하신 배경은?

새로 부임할 목사님을 위해 12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해 왔고, 가장 적합한 분을 세우게 됐다. 이제 제가 하루빨리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더 낫다고 생각했고, 사심 없이 결단을 내렸다. 이제 멀리서 바울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후임자가 마음껏 자신의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한국교회의 원로로서 현재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한국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 첫째로, 교회의 본질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희석되면, 교회는 성장 문화는 물론이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합의 부재다. 너무 개교회주의·인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희망이 없다. 내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려면 기독교 지도자들의 연합과 단합이 중요하다. 이단들은 혈맹처럼 철저히 단합함으로써 막강한 힘을 가진다. 그런데 기독교는 갈수록 개교회주의·개교단주의로 가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 자녀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심지 못하고 세상 교육만 시킨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교회의 67%가 교육부서의 문을 닫고 있다.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모두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기에 급성장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온 교회와 지도자가 하나되어 연합하고 단합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처럼 연합하고 단합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솔직히 고백한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야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희석되어 도중에 하차하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는 것을 46년을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았다. 기독교인은, 구원받았는가와 변화받았는가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교회에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본지 이사장인 감사한인교회 임덕순 장로와 특별한 친분이 있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임덕순 장로의 어머니인 김정자 권사님(기독교성결교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중경회장은) 제가 신학생일 때부터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 주신 분이다. 음식과 용돈을 수시로 챙겨 주시며, 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 격려해 주셨다. 그것을 계기로 임덕순 장로와도 오랜 시간 좋은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 김 권사님은 지금까지도 성결교회 권사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다.



얼마 전 은퇴한 원 목사는 지금도 현역 시절의 열정으로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복음에 빛진 자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일에 미력하지만 여생을 바치겠다. 금원글로벌복지선교재단을 한국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서 사람을 키우고 국내외 선교에 전력을 다하려 한다.

또 바울교회가 필리핀에 세운 바울신학대학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데, 필리핀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쪽 졸업생들이 동남아와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와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다. 갯세마네기도원과 30여 지교회도 세웠다. 선교를 하다가 같은 교단 소속도 아닌데 우연하게 만나게 된 이종후 선교사를 통해서 필리핀 사역이 커졌다. 이번에 필리핀 기독교 지도

자를 초청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성장은 중단되지 않았다. 지도자가 어떤 방향과 사상으로 가느냐가 문제다. 우리가 본질에만 충실한다면,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교회는 얼마든지 성장한다. 인본주의와 인위적인 방법 및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고 권태가 온다. 교회 성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 기도와 예배 전도, 이것이 본질이다. 이 본질을 회복하는 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교회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세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4〉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을 다녀온 추억 (1)

몇년 전 필자는 뉴욕에 계신 원로방송인 김영호 장로님의 초청을 받아 볼티모어 한인교회 교우들과 노스캐롤라이나 에쉬빌 지역 블랙마운틴을 방문했다.

그곳은 지난 21일 99세로 소천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고향이다. 블랙마운틴을 방문한 목적은 그 산간 마을에서 촌을 이루고 살고 계신 노(老) 선교사님들을 뵙기 위함이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른들이었다. 당시에 약 70여 분 생존해 계셨는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감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분들은 대부분 20대에 한국에 와서 70이 넘는 연세까지 간호사, 의사, 고아원, 학교 등의 사역을 하시고 나이가 들어 한국인들에게 폐가 될까 우려해 미국으로 돌아온 분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반기고 모실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그랬다. 돌아갈 준비나 은퇴복지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 자기를 그저 드렸다. 그런 은퇴 선교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운 분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내외였다. 한국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그 어른들에 대해 한국교회는 관심을 미처 갖지 못할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기가 거쳐하는 고향 땅 자기 집 근처의 땅을 매입해서 은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무상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많으셨을 때는 거의 90여 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분들은 한국교회에서 자기들을 찾아 왔다는 소식에 너무도 감사하며 우리를 두 팔 벌려 반겨 주셨다. 우리가 고마운데, 우리가 감사한데 그분들은 자기들을 기억해 주어서 고맙다고 감격해 하셨다. 그 어른들과 마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평생 간호 사역을 했던 '마리아'라는 당시 93세 되었던 선교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며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혜라"를 모두가 한국어로 불렀다. 예배 후에 아리랑을 부를 때는 모두 울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어른들께 친절로 세배를 드렸다. 한분 한분을 다 안아드렸다. 그 순간에는 내가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그분들께 감사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 마음은 감사, 부끄러움, 기쁨, 사죄 등등의 감정이 뒤섞여서 감격이 넘쳤던 기억이 난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이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이었다. 당시 90세 되셨던, 목포 기독교병원장이셨던 한 선교사님은 자신은 96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셨다. 왜냐고 물으니 "내 소원은 한국이 통일되는 것인데 하나 남게서 그때 통일을 이루시겠다는 답을 주셨다"는 것이었다.

그분들을 방문하고 오후 늦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뵈려고 방문 허가를 받고 댁을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셔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왔으면 하셨다. 다음날 아침 다시 찾아 보였으나 목사님의 건강이 손님을 맞을 컨디션이 아닌 소식을 들으며 그 집 앞에서 통성으로 목사님의 회복과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다음 일정을 이어갔다.

1973년 중학생이었던 필자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따라 뭇지도 모르는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 까마득히 보이는 강단 위의 한 분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도 모른 채 그를 바라보던 까까머리 한 아이가 이제는 선교사명자가 되어 그분의 천국가는 길에 깊은 감사의 고개를 숙인다.

● 행복설계사 강태광 목사 칼럼

공감이 행복이다

한밤중에 귀를 들 수 있는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을 깨우고 "손들어!" 하였습니다. 잠결에 주인은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듭니다. 그러자 강도는 또 고함을 칩니다. "오른손도 들어!" 그래도 집주인은 왼손만 조금 더 높이 들 뿐입니다. 그러자 강도는 또다시 "오른손도 들어!" 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그 집주인은 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강도 역시 오른손이 신경통으로 마비되어 제대로 일을 못하였고 그래서 강도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경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강도는 물건을 빼앗으려고 왔던 자신의 목적을 잊고 신경통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도 신경통 이야기에 강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잊고 신경통 치료와 관리, 신경통에 무슨 약을 쓰느냐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녘에는 사이좋게(?) 헤어졌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 강도와 신경통 줄거리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나누는 현장에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다. 공감이 없는 참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공감(共感)은 함께 느끼는 것 즉 동정(同情)입니다. 동정 혹은 공감이란 말 'sympathy'는 타인과 함께 (syn) 감정(pathy)을 나누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며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Compassion이란 말도 있습니다. 함께(Com) 고통(Passion)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 로먼 크르즈나리키란 사람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고, 그들의 감정(정서적 측면)과 관점(인지적 측면)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활용해 자신의 행동을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긴꼬리원숭이 과에 속하는 레서원숭이에 대한 행동실험을 보면 원숭이도 공감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원숭이가 먹이를 집을 때마다 우리 안의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자기가 먹을 때마다 다른 원숭이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된 원숭이는 먹이를 포기하고 굶어 죽는 쪽을 택했습니다. 먹이를 얻어먹을 때마다 다른 원숭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자 실험 대상 원숭이는 12일 동안이나 먹이를 거부하다가 굶어 죽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런 원숭이만큼 공감능력이 없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거나 타인의 아픔에 냉담합니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구성원들의 희생, 수고, 아픔을 너무 쉽게 생각할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불행합니다. 나아가 이런 사람은 스스로도 불행합니다.

공감하는 곳에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삶의 폭이 넓어지고 공감하면 이웃이 생깁니다. 공감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만큼 삶의 폭이 넓어지고 공감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한인기독교상담소 부모학교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KACC, 소장 김화자)가 3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LA 상담소(500 Shatto Pl. #601, 213-738-6930)와 부에나팍 상담소(7342 Orangethorpe Ave. #A103, 657-529-1133)에서 각각 10주 과정의 부모학교 세미나를 연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 당

신은 부모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세미나는 이민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설됐으며 부모 자녀간 세대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이외에도 자녀들의 성교육, 정신건강 문제 및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워크샵도 진행된다. 부모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

는 방법도 제시한다. 참가비는 100달러다.

한편, 상담소는 오는 6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6주 과정의 북클럽을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열 계획이다. 참가비는 40달러. 북클럽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베르벨 바르데츠키 저)"는 책을 함께 읽으며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사별의 아픔 함께 나누며 회복 향해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가 사별 가정 회복 세미나를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3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연다.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로 먼저 떠나보낸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며,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식사와 커피가 준비되며 자녀들을 위한 베이비 시팅도 제공된다. 세미나 등록은 교회 웹사이트 www.bkc.org로 가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로는 전화 562-677-5122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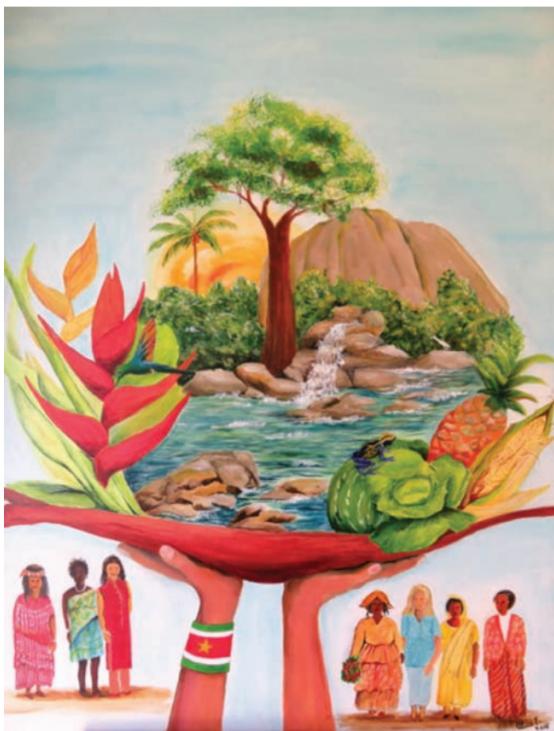
베델한인교회에서 사별 가정 회복 세미나 등록을 받고 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준,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ORLD DAY OF PRAYER



예배문 작성국 : 수리남

2018년 세계기도일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31)

“All God's Creation is Very Good!”

세계기도일예배는 세계 180여개 나라의 교회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토요일에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예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예배함으로 지구자전과 함께 24시간 여성들의 기도가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131년의 역사와 함께 인종, 문화, 성별, 빈부, 인간과 자연의 불화와 분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평화실현을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미주 한인 교회 여성들은 1984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설립하여 34년 동안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미국내 한인 교회 여성들이 세계기도일예배를 드리도록 주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부



회장 : 최순자 부회장 : 유화진, 조진숙, 장영란, 김미선

일시 : 3월 3일(토) 오전 10시
장소 :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Korean Church Women United USA

교회 부흥을 위한 성령 역사

에베소서 1:17-2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구약시대에 1600년에 걸쳐 많은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죄 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죽어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구원계약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아무나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사람에게는 성령의 계시와 조명과 체험과 감동에 의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1. 성령에 대한 성경적 증거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17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 하셨는데, 그 정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푸뉴마”라고 해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영인데 누구의 영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너 자신이 죄인임을 즉시 깨달아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역할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내리니”라는 표현을 신학적 용어로는 “발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뛰어난 신학자들이 그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1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한글성경에는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성경은 미국 성경 중에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과 가장 가까운 영어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당시의 경건한 신학자들을 불러서 원문에 가장 충실한 성경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The Father”은 “그 아버지”, “The Word”는 “그 말씀”, “and the Holy Ghost”는 “그리고 그 성령”, “and these three are one”는 “그리고 이 셋은 곧 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파테르(아버지)”, “로고스(말씀)”, “푸뉴마(영)”라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 성령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스승은 성령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성령의 말하게 하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행 2:4)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대언자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고 마음에 찢려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빌라도를 강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라는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날에 구원 얻은 숫자가 3천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로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학식, 기술, 지혜,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설계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남은 평생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길로 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불 들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의 신앙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의식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성과를 기대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하라 하신 일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과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끄러는 믿음의 엄청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내 지식이나 상식이나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혔을 뿐이기에 내게서 나타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

도, 어디 가서 봉사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게서 나타날 분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소망하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1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실 때에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 갈 백성 되었음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체험주시고 감동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문제에 낙심하거나, 어려운 형편으로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생활을 원하시는데, 단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그릇을 보이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 그릇에 세상 것을 채웁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다고 기대하며, 자랑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믿음이 있다면 세상 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쏟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로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8 부활절 특별할인 행사



EVENT 1 | 감사패(임직패)할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드와 크리스탈재질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65-\$49 / -\$75-\$59

고급 케이스 포함

EVENT 2 | Back Drop

고퀄리티의 배경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새신자 환영 및 각종 행사용 120x96 스탠드포함 \$380-\$299



교회 행사 및 새가족 사진촬영 배경으로 강추!!

거치대 무료증정

EVENT 3 | 부활절 배너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다양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65-\$49 / -\$6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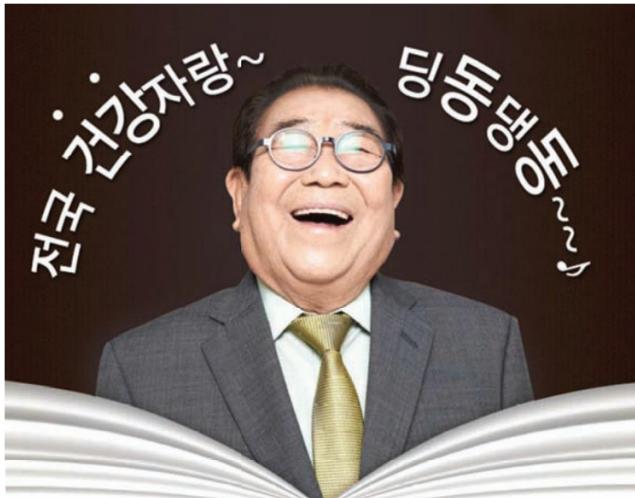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업체를 섬기는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	-----------------	-----------------	-------------	------------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뉴욕총신대학교가 2018년 봄학기 개강예배를 12일 오후 7시에 뉴욕분교 캠퍼스에서 드렸다.

뉴욕총신대학교 봄학기 개강예배

예배의 회복이 신학생의 우선순위

뉴욕총신대학교(대학원)가 2018년 봄학기 개강예배를 12일 오후 7시에 뉴욕분교 캠퍼스에서 총장, 이사장, 교수, 동문 및 재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드렸다.

이날 예배는 신성능 목사(교수)의 인도로 윤성태 목사(뉴욕분교 학장) 대표기도, 박희근 목사(교수) 성경봉독, 강유남 목사(뉴저지분교 학장) 설교, 조영길 목사(교수) 봉헌기도, 이재영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강유남 목사는 '성전과 교회'(고전 1:2-3, 요2:19-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각 시대마다 성막과 성전,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해진 성도들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된 것에 감사를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유남 목사는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세대적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과 교회가 이어져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분, 곧 교회의 머리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

도께서 보여주신 예배의 회복이 바로 신학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유남 목사는 "먼저 모범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예배자가 돼야 하고, 이는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총장 정익수 목사는 훈시를 통해 "신학생의 중요한 덕목은 섬김의 자세"라면서 "큰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익수 목사는 이날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는 "신학생의 길이 복된 사명임"을 강조하면서 "힘들 때마다 언제나 찾아와 함께 나누고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격려했다.

뉴욕총신대학교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의 신입생 및 편입생이 등록했으며 이들은 이번 개강예배를 통해 사명자의 길을 새롭게 다짐했다.

개강예배 후에는 박사원 일동의 제공으로 마련된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교수, 재학생, 신입생의 특별찬양이 이어져 참석한 이들에게 큰 은혜를 전했다.



타코마 새생명장로교회에서 열린 송지혜 박사 초청 자녀 교육 세미나

내 자녀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타코마에서 송지혜 박사 초청 세미나

지난 11일 타코마 새생명교회(담임 임규영 목사)에서 "건강한 가정과 아이들의 성격 이해"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전한 송지혜 박사는 "자녀의 성공적 양육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가진 여러 기질과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들의 말과 생각을 통해 자녀의 속마음까지 잘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격심리 전문가인 송 박사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성격 유형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격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성격이 부모와 정반대적인 유형일 경우,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고쳐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이 곧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송 박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각 없이 내뱉는 부주의한 말들에 대하여 주의를 요청하면서 "그런 말들을 습관처럼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또 다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습관처럼 되풀이될 수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하는 뻔한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부주의한 말들은 자녀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잔소리처럼 들리기 쉬운 경향이 있다"며 "오�히려 폭넓은 대화나 타협을 통해 자녀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조언했다. 송 박사는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는 '유심히 관찰하는 눈'이 필요하다. 관찰을 통해 통찰력을 얻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융합의 길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자녀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송지혜 박사는 피아노교수학 박사이자 성격심리 전문가로, 연세대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 UCLA 대학원 피아노 박사과정을 거쳐 ACM 대학에서 피아노 교수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교수를 역임했고 피아노와 심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책을 저술했다.

애틀랜타한인목사회 월례회 열려

애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류재원 목사)가 2월 월례회를 지난 19일(월) 예수로교회(담임 김요셉 목사)에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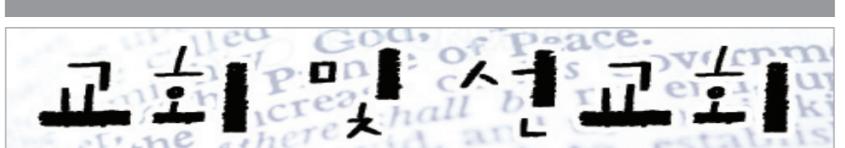
이어 진행된 월례회에서는 신입회원으로 조용수, 김덕영 목사가 가입했으며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요셉 목사는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특세하는 세상이지만, 참된 진리는 예수와 연

합하여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노행정보험의 노행정 대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목사회는 LA한인침례교회 박성근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새생명 침례교회(담임 조용수 목사)에서 '영적 각성 및 성장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사를 배양하며, 이단기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세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갈릴리션교회
가족들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벽 오전 6:20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 오후 7:30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수심을 달이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ia.org

서건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학교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어침례부 오후 1:30 오영어 화 오전 11:00-오후 6:00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침례부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3:3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민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8시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쌍예배(월-토) (스페셜) 오전 11:00

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충현선교회
콜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학교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고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 오후 7:30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8: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받은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a.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침례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출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구동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이 힐-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행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민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망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8:00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2:45
주일3부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믿음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구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n.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Pina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232)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신국원 교수

세계관 전쟁의 시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신국원 교수, 오륜교회 '자녀교육 세미나'서 역설

‘기독교학부의 자녀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세미나’가 20일 오륜교회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선 신국원 교수(총신대 신학과)가 ‘세계관 전쟁의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자’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꿈이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자녀로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오륜교회꿈피학교실립준비위원회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문화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 흐름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기독교인의 자녀를 역시 이 변화에 바로 직면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면서 “유혹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길 비전이 필요하다. 성경은 특별한 세계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면서 성경을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신 교수는 “세계관은 삶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 안목으로 세상과 인생에 대한 앎의 기초이자 전략의 기초”라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삶에 대한 전체적 조망의 추구는 본능적”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질문을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 못해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며 “성경을 통해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세계는 하나이지만 세계관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하고 다르게 인식한다. 세계관에 따라 삶과 문화가 형성되고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화가 달라진다”면서 “다원주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시대에 세계관은 다양하므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곡을 예로 들면서 “우리 시대 세계관 교육은 미디어, 즉 대중문화가 하고 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어떤 가수가 ‘Imagine’이라는 곡을 불렀다. 이 곡은 전쟁도 국경도 빈부격차도 없는 공산주의에 준하는 국가를 꿈꾸며 세계평화를 노래한다.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세계관을 담고 있는 노래”라며 “기독교인이 다음세대에게 세계관 교육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하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의 삼중 진리인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 기초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라보는 비전이다. 요한 칼빈은 성경에 대해 ‘자연인의 안목을 고쳐주는 안경’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또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에 대해 ‘바라볼’(look) 책이 아니라 ‘통해서 볼’(look through) 책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창조의 세계관은 세상과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있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준다. 타락은 죄와 악, 그리고 심판과 죽음에 대해 알려준다. 구속의 진리는 대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르친다”면서 “채플과 성경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을 성경을 통해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커리큘럼과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한 수준 높은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후원이 없이는 나올 수 없다. 기독교 학교에 있어 교실이나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능력 있는 교사”라면서 “요즘 아이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데 성경의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고백되고 순종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마틴 루터 킹의 연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Storytelling)와 비전(Visiontelling)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재형성한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꿈과 비전이 담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자”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이미경 기자

백석과 통합했던 예장 대신 목회자들 복원위원회 구성

안양대서 모임 갖고 법원 합의조정안 반대하기로

예장 대신-백석 총회 통합에 나섰던 대신 측 목회자들이 ‘대신교단복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백석 총회를 탈퇴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예장 대신 통합파(이탈 측)는 8일 안양대에서 법원 합의조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372명의 참석자 중 308명이 투표에 참여해 합의조정안에 290명이 반대했다. 찬성은 18명에 불과했으며, 기권이 1명이었다.

법원의 합의조정안은 △피고(통합 총회)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피고의 명칭에 ‘대신’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원고(수호측), 피고 및 조정참가인은 2015년 9월 14일 제50회 총회에서 한 결의에 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총 비용 및 조정참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이다.

이탈 측은 투표에 앞서 “예장 대신”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있을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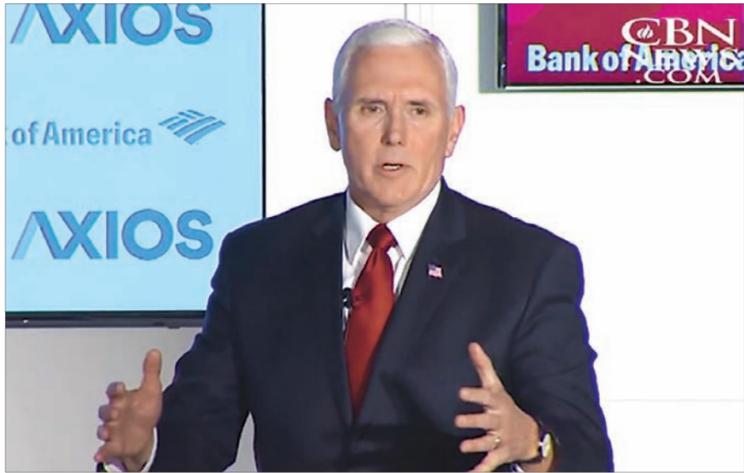
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잔류한 예장 대신 총회 수호 측과 이탈 측 간에 복원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장 대신 총회(총회장 김동성 목사) 측은 “통합파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다시 대화를 통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 대신 출신으로 현 통합 교단의 총회장을 맡고 있는 유중국 목사는 “투표인수가 적어서 안 되기 때문에 투표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으나 참석자들이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은 만큼, 인원 수와는 상관없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유 목사는 “모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며 퇴장했다.

이대용 기자



미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밝히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C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기독교 신앙, 내 삶에서 가장 중요”

ABC 토크쇼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ABC 방송의 한 토크쇼 프로그램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난한 것에 대해 “이는 나 뿐 아니라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앞서 ABC 방송의 토크쇼 ‘더 뷰(The View)’의 한 패널은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신앙에 대해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이 나의 기독교 신앙을 정신질환과 비교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저 웃어넘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명백히 틀린 관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관점은 나쁜 아니라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매일의 삶을 시작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아내와 함께 기도한다”며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믿

음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으며, 삶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나는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미국인들이 나의 이런 신앙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ABC와 같은 주류 방송사가 종교에 대한 이처럼 편협한 시각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미국인들의 신념과 가치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며 “매우 잘못된 것이기에,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펜스 부통령은 “(ABC 프로그램의 비난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다. 단지 나만이 아닌 자신들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미국인들을 위해, 그저 침묵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나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원이다. 이 순서대로다”(I am a Christian, a conservative and a Republican. In that order.)라고 고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수단의 교회 벽이 훼손된 모습 ©월드와치모니터

수단, 사전 경고 없이 교회 재산 몰수

수단의 한 교회가 사전 경고도 없이 당국에 의해 파괴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모닝스타뉴스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카르툼 알라즈유시프에 소재한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들은 “교회 내 64명의 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평화를 해친다”고 밝혔으나,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이 지역의 무슬림 사업가가 교회

가 들었던 땅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교회의 성경, 의자, 탁자가 모두 몰수됐고, 불도저가 건물을 밀어버렸다고 한다.

이날 기독교 활동가 사만 마하주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인권 활동가들과 인권 지지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고 당국에 빼앗긴 교회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도록 촉구해줄길 바란다”며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강혜진 기자

창조 가르친 학교 ‘최저등급’ 평가

영국의 교육감독기관이 기독교 초등학교가 과학 시간에 창조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등급을 매겼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은 최근 보고서에서 킹스키즈 크리스천스쿨이 지구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킹스키즈스쿨은 오순절교단 출신의 목회자가 교장을 맡고 있는 기독교 학교이며 전체 학생 수는 25명이다.

보고서에서 교육기준청 관계자는 “이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된 신들’을 예배한다고 믿는다”면서 “학생들이 실용과학을 연구하거나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과학 시간에 창조 이야기를 배우고 있으며, 학생들이 지구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킹스키즈 대변인 니겔 스틸은 프리미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진화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실제로 학생들이 기원에 대하여 광범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기준청은 킹스키즈 학생들의 뛰어난 영적인 인식에 주목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평양총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주일에배 1부 오전 8시 주일에배 2부 오전 11시
EM*영어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수요기도모임 오후 7시 30분
토요새벽예배 6시 30분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Nachimban Church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목예배 매일 4부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에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 배-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에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30분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생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에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태평양총회 오후 2:0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 M(Youth) 오전 11:00

오렌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3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지되고 제지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C)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에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토)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mcc.org

영광스런 도시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아모스 선지자는 북조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에 '그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파격적입니다. 드고아의 농부 출신의 선지자는 갑자기 나타나서 멸망의 흉한 소식을 전합니다. 상상이대로 일컬어지는 가장 풍요한 시대에 파멸이 임한다는 충격적인 예언은 40년 이후 기원전 721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풍요한 섬이 있다면 두로일 것입니다. 두로(Tyre)는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의 섬입니다. 특히 두로는 바다에 떠 있는 섬을 요새화시켜 남북으로 항구를 만들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무역제국을 건설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두로는 항해술과 무역으로 지중해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재물과 보물은 두로를 교만하게 하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만큼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알렉산더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두로 내륙과 섬을 잇는 500피트의 길을 내어 알렉산더는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에스겔서 26-27장에서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보다 더욱 강력한 두로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던 상인들은 물론이고, 땅의 왕들과 선원들과 노무자들이 더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바벨론의 붕괴는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의 멸망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의 종말은 성도들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본 로마제국의 멸망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될 세속적인 적그리스도의 국가 종말에 이를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 사도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선지자들과 성도와 의인을 죽이고 핍박하던 국가가 망합니다. 만국을 미혹시킨 상품의 거래가 이제는 모두 종결됩니다.

거대한 세속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한 시간에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핵폭탄으로 파괴된 것처럼,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도시 바벨론이 지극히 짧은 시간에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속국가의 종말이 교회에게는 오히려 해방과 자유의 시작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망하지 않는 세속국가는 없습니다. 바벨론은 망하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국경 없는 세상



김한요 목사
베멜한인교회

각하면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대한민국의 지명도가 인정된 듯합니다.

세상은 지구촌화되어가고, 옆집 가듯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고, 올림픽을 하면서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라" 노래하며 국경의 턱을 없애고, 나라마다 단일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다문화권으로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의 장막처럼 넘을 수 없었던 높은 이슬람의 벽도 난민으로 그 벽을 허물고, 강제적으로 문화가 공유되고, 언어가 소통하게 되게 하는 세계적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뭔가 큰 힘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할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흠뻑했던 민족들을 한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느껴집니다. 어떤 특정 나라, 민족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모든 여건들이 이제 완성된 느낌이 저의 맘을 긴장되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제23회 동계올림픽이 한국 평창에서 열려 뜨겁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전인권을 위시한 가수들이 존 레논의 이매진(Imagine)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계 92개국에서 역대 최대인 총 2천 92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각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며 메달 사냥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존 레논의 Imagine은 나라가 없다고 상상하면 나라 간의 전쟁이 없고 죽고 죽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녁 뉴스에 간간히 올림픽 경기를 보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컬링이라는 종목에서 최고의 캐나다팀을 이기고 메달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 부르는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의 은퇴 후, 쇼트트랙에서나 선전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종목에 많은 유망주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놀라운 것은 한국팀에 벽안(碧眼)의 선수들이 귀화하여 한국 선수로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달의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교육받던 옛날과는 완

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한국도 다문화권이 형성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조선족들이 제일 많이 한국에 유하고 있으며, 단일국가로선 베트남에서 최대 약 20만 정도의 인구가 그리고 필리핀 순서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2월 13일 나온 뉴스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이 대한민국에 사전 비자 없이 자국 입국을 허락함으로써 독일과 대한민국 여권이 싱가포르와 함께 총 161개 국가를 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여권이 되었다고 합니다(lab-sseoul.com). 2등에 일본, 덴마크가 있고, 3등에는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강한 이민정책으로 4등으로 등수가 밀린 미국 '독수리' 여권을 생

충성된 종이 되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김병규 목사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이겨내게 되기 때문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큰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심만 있다면,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은 자꾸만 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충성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바쳐보십시오. 이 세상 누군가를 위해서 혼과 생명을 쏟아 바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우리들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분을 맡고도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가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능력이란 것은 사용해야 더 커지고 성장한다는 교훈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재능은 자꾸만 작아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은 종이 어머니와 3류 극단의 악사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베토벤이 13살 때 죽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로 그가 17살일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운한 삶 가운데서도 베토벤은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웠고, 그 음악을 무척이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소년기를 보내면서도 내가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토벤은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며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좋은 음악을 만들어주자"는 결심을 하자 이 꿈이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충성이란 자기 마음의 중심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감사와 존경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

새해 맞이 골드 멤버십

정수기 물병 Free

* \$290

월4회 개인 레슨
정회원 한달(무제한 볼사용)

웨스턴골프연습장
New Western Golf

***골프 멤버십 200볼 상당의 정수기 물병 Free**

물병의 6가지 특징

1. 향산화
2. 풍부한 아연
3. 알카리 밸런스
4. 작은 물 분자 클러스터
5. 열소제거
6. 음이온

건강에 필요한 것 충족

좋은 물 마시는 습관을 위해, 파이물립!

- * Classy Style Bottle의 디자인
- * 클래식 스타일 캡은 복유림의 감성을 더해 심플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 * 한 손에 들어오는 크리로 그림감 또한 뛰어납니다.
- * 가벼운 스텐레스 재질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등산, 여행, 캠핑,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 Classy Style Bottle의 구성
- * 더블 카트리지가
- * 클래식 스타일 캡은 상/하의 특별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정수기 물병

Jacob Choi 최제익 T.(310)598-0746

GOLF PROFESSIONAL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커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프리미엄 크루즈의 특별한 축제를 함께 즐기세요~”

북태평양 (빅토리아) 크루즈와 캐나다 로키를 함께... 9일

\$1,790 ▶5월9일

- 모든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실내 외 수영장, 조깅트랙, 휘트니스 센터, 스포츠 코트 등]
- 문화 시설 무료 이용 [대극장, 카지노, 다양한 라운지&바, 미팅룸, 도서관, 인터넷 카페, 아트 갤러리]

▶ 로스앤젤레스-빅토리아-밴쿠버-자스퍼-밴프-캘거리-로스앤젤레스

1) 안달훈 한국기원 프로9단 동행 바둑강좌 및 다면기 대국

2) 부모님과 함께 효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세미나 / 대학 학자금 세미나 / 소액 CRA LOAN 세미나

213.739.2222 317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www.prttour.com

루터 칭의론 옹호자와 비판자 모두 깊은 이해 부족

루터의 칭의론, 제대로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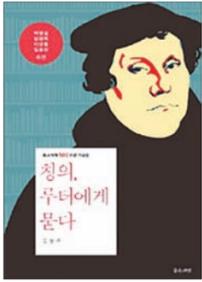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는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이자, 가톨릭과 대비되는 개신교의 정체성과 같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간단히 말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가톨릭과의 근본적인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이 칭의론이 또 다른 '도전'을 받고 있다. '바울에 대한 새 관점(New Perspective on Paul)' 학파는 바울이 주장하고 루터가 재발견한 이 칭의론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루터의 '이신칭의'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칭의, 루터에게 묻다>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루터 신학' 연구로 교회사 박사학위를 받고 루터의 심자가 신학에 대해 16년간 연구해 온 저자가 이러한 논쟁을 염두에 두면서 집필한 루터의 칭의론 연구서이다. 저자는 "루터의 칭의론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16세기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루터의 칭의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법정적 칭의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연구를 해왔고, 또한 루터의 저작 일부만 보고 그 중에서 일부 문장을 뽑아내 그의 칭의론을 구성하려 했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그의 칭의론 이해가 그의 신학 초기와 중기, 말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저작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의 칭의론의 다채롭고 심오한 측면을 부각하여 전달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저자는 루터가 칭의론을 부르짖게 된 계기부터 최초 성경 강의인 시편 강의(1513-1515)에 나타난 칭의 이해, 루터 칭의론의 정초인 로마서 강해(1515-1516), 개인적 칭의 체험에 의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1519년), 소위 종교개혁 3대 논문을 비롯한 가톨릭교회와의 쟁투기에 쓰인 저작들(1519-1520)에 나타난 칭의 이해, 대(大) 갈라디아서 강의(1531-1535)에 나타난 칭의 이해, 마지막 강의인 창세기 강의(1535-1545)에 나타난 칭의 이해 등 루터의 저작을 순차적으로 살펴면서 칭의 이해의 발전과 변화를 탐구하고 있다.

저자는 루터의 칭의론을 단지 현대 교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고, 도리어 현대 교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칭의, 루터에게 묻다
김용주
좋은씨앗 | 200쪽

그 이유는 "현대 교회가 겪는 위기의 본질은, 죄인의 칭의에 대한 확고한 관점이 결여돼서 생기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루터에게 칭의론은 교회를 살리고 자신을 살린 중요한 교리였으며, 이 교리를 묵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힘썼다. 루터에게 칭의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기 위한 교리였고, 칭의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창조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조항의 핵심이자 목회자가 올바르게 목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봤다. 그는 이신칭의를 '교회 사고 넘어지는 조항(articulus stantis et carentis ecclesiae)'이라고 말했다.

루터는 첫 번째 시편 강의를 통해 당시 스콜라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칭의론과 바울이 말하는 칭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고, 로마서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칭의 이해를 드러내는 동시에 스콜라 신학자들의 잘못된 칭의 이해를 비판했다. 그리고 바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갈라디아서(1516)와 히브리서(1517-1518) 강의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지 못하다, 1519년 2차 시편 강해 직전 이신칭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는 의'에서 '구원하는 의'로 해석하게 된다.

이후 '라이프치히 토론' 등을 통해 루터는 신앙과 행위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그의 칭의론을 좀 더 완성된 형태로 제시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창세기 강해를 통해 칭의론을 완성한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획득된 의라며 속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짐을 천명함과 동시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해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저자는 이후 트리엔트 종교회의가 루터의 개혁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살펴부터, 루터 정통주의와 칼빈에게서 시작된 개혁과 신학, 자유주의·신정통주의 신학, 제2차 바티칸 회의, 새 관점 학파 등 역사적으로 신학계에서 루터의 칭의론을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를 짚어본다.

특히 새 관점 학파 중 톰 라이트에 대해 "라이트는 루터의 신학에 심한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그의 루터 비판이 루터에 대한 불충실한 연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때 충격을 받게 된다. 그의 책을 읽어 본 독자들은 알겠지만 그가 루터를 비판할 때 루터의 저작에서 직접 인용한 곳 거의 없다"며 "그는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sola fide)'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톰 라이트와 존 피어의 칭의 논쟁을 비롯해 현대 칭의 논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자들이 루터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의 칭의론의 극히 일부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점은 전통적 칭의론을 사수하려는 학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전통적 칭의론 입장을 지지하고 변호하려는 학자들은 루터의 칭의론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양측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이 책이 루터 칭의론 연구의 기록체가 되길 바란다"며 "루터의 칭의론이 제대로만 이해된다면, 오늘날 무기력해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리라고 믿는다"고 도전했다.

이대웅 기자

성경 66권을 3가지 질문에 기반해 설교 66편으로 담아낸다

남영섭 목사 <핵심 메시지 성경 가이드>



핵심 메시지 성경 가이드
남영섭
하에성출판사 | 364쪽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한 믿음의 가문 이야기가 나온다"며 창세기의 뜻과 저자, 주요 구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1-3장), '대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4-11장)',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12-50)' 등 창세기를 크게 3곳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설명한다.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①여자의 후손(3:15) ②노아의 방주(7:1) ③이삭 대신 제물이 된 수양(22:13) ④은전 20에 팔려가는 요셉(37:28) 등으로 묘사한다.

'창세기의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는 ①창조주 되신 유일신 하나님을 계시한다(1:1) ②모든 것의 시작을 교훈한다(1-11장) ③인간 세상에 대적자와 방해자가 있음을 보여준다(3:1) ④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언한다(3:15) ⑤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교훈한다(6:7) ⑥전통적으로 영원히 믿음의 가정, 가문을 세우고 지키라고 교훈한다(12:1-9) ⑦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교훈한다(17:4) 등을 열거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성경에 계시되고 기록된 사건이나 인물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각각의 사건과 인물에 관한 기록 속에는 반드시 나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온전한 종말 신앙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종말에 대한 계시 지식은 그만큼 중요하다"며 "요한계시록은 잠자 될 일에 대해 알려주는 계시로, 이는 기독교만의 비밀이자 종말의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필요시 순교도 각오하는 '순교적 신앙', 언약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참 신앙', 그리고 '재림 대망 신앙'이라고 전했다.

저자는 "이 책이 설교 준비에 좋은 재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운동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Since 1979
Gold Finger
골드핑거 양복점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최우수상!
연속 3회 수상에
빛나는 결혼 예복 전문점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yelp PEOPLE LOVE GOLD FINGER TAILOR ON YELP!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올한올,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로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잔해



양의 문의 모습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3)

참된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스테반 교회를 거쳐 북서쪽으로 올라가보자. 조금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옛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다소 힘이 들어도 이 길을 올라가 보자.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과 만나기 때문에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벳파게(Beth Page, 무화과 동네의 집)에서 출발하는 임성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잠시 후에 도착한 사자문에서 벽에 조각된 4마리의 사자를 만나게 된다. 1517년 오스만 터키는 당시에 이 땅을 점령하고 있던 마물렉 이집트 아랍제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었던 승리자 술레이만 황제는 승리에 도취되어 잠을 자게 되었고 꿈 속에서 굶주린 사자 4마리를 만나게 된다. 사자들은 황제를 먹으려 했고 황제는 너무 놀라 왜 사자들이 자기를 공격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잠에서 깨어난 황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꿈에 나타난 4마리의 사자를 기억하여 벽에 사자를 조각하게 되었다 한다.

이 성문의 다른 이름은 양의 문이다. 구약시대에 이 문을 통해 제물이 될 양들이 들어 왔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겨진 양들은 제물로 드러졌다 하여 양의 문으로 불리게 되었다. 신약시대에 와서 스테반 집사가 성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은 후 이 문을 통과하여 키드론 골짜기에서 죽었다 해서 스테반 문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 문 안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마리아가 출생하였다 하여 마리아

의 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제 4개의 문 이름을 가진 사자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스라엘 경찰들이 검문하는 모습을 보며 왼쪽을 보면 성전 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마리아의 생가라는 건물을 보게 된다.

구세주의 외가, 성 안나 교회

계속 좀 더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베데스다(Bethesda) 연못이라는 작은 못말을 보고 큰 대문으로 들어가 보자. 웅장한 십자군 시대의 교회를 먼저 만나게 된다. 이 교회 이름은 성 안나 교회이다. 즉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를 기념하여 십자군 시대에 지은 교회로서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이다.

1099년 7월에 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거룩한 도시에 예수님과 관련된 곳에 기념교회들을 재건한다. 이미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침입자들에 의하여 파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들이 필요하였다. 여러 교회들이 건축되었지만 1187년 9월 20일 아랍의 영웅 살라딘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교회들은 파괴된다. 이 와중에 살아남은 교회가 성 안나 교회이다. 살라딘이 이 교회를 남겨 둔 것은 건축 공학상 공명장치가 특이하였기 때문이다. 후일에 이 교회는 아랍의 학교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1878년 프랑스 가톨릭 교회에 소유권이 넘어 오게 되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이 교회는 음지들을 위한 교회라

불리기도 한다.

아무리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이곳에서는 훌륭한 성가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순례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함께 찬양하며 찬상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놀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한다.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교회 밖으로 나와 오른쪽을 보면 부서진 교회 건물의 모습과 깊은 웅덩이를 볼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 왕하18:17에 나와 있는 웅덩이 바로 이곳이며 사7:3 절에 나와 있는 동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씻었던 못으로 사용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병자들이 못에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병자들의 집합처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가로 18m, 세로 45m 정도의 넓이에 약 3m 정도의 깊이를 가진 이 못은 예수님 당시에는 폭이 50m, 길이가 150m, 깊이가 13-15m 정도의 연못이었다고 한다. 이 연못은 수백 년 동안 흙으로 덮여져 있었으나 1888년 처음 발굴되었고, 1954-1957년 사이에 완전히 발굴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발굴 작업을 통해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의 교회의 골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행

각 다섯 개가 있었고 병자, 소경, 절뚝발이, 헝기 마른 자들은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지만 자비가 없는 곳이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더 생기는 곳이었을 것 같다. 양보도 없는 현장이었다.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기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고려할 수 없는 것이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38년 병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 전혀 못에 들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38년 병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먼저 들어가도록 양보하겠는가?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병자는 다른 사람이 낫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방법은 간단하다.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만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연못물에 들어가기 싫으면 기다릴 필요도, 경쟁이 안 되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필요도 없다. 그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예수님이 오시니 혼란과 무질서가 바로잡히고 베데스다는 참 자비의 집으로 변했다. 병자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 받았겠는가?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은 단계까지 이르렀으리라.

세상은 아직도 자비가 없는 데도 흑사나 하는 심정으로 베데스다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한 순간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냉정한 세상을 맛보며 더욱 좌절하게 된다. 예수가 없으면 무질서와 혼란뿐이다.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예수만이 참 자비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고질병과 문제를 말끔히 고쳐 줄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계속)



성 안나 교회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8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3월 22일 개강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네),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비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신앙은 교리 아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펴낸 김형석 교수

“교회는 우리끼리 즐기고 만족하는 신앙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을 사회와 국가로 배출하는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지 않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두란노)>를 펴낸 김형석 교수를 만났다. 자신의 신앙생활과 체험을 주로 담아 2004년 펴낸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을 토대로 한 이 책에서 김 교수는 우리 사회와 역사를 위해 기독교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보충했다고 한다.

김형석 교수는 머리말에서 자신의 신앙적 과정을 3단계로 요약한다. 먼저 20세가 될 때까지는 교회가 ‘신앙의 모체’이자 ‘신앙생활의 가정’이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라는 가정적 울타리를 벗어나 국민과 지성인으로서 신앙을 탐구했고, 예수의 가르침이 인생의 진리일 수 있는가 질문했다. 기독교 사상가와 저명한 신학자들의 정신을 통해 신앙을 궁극했고, 이는 교회가 요청하는 교리적 신앙과 더불어 진리로서의 복음을 터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을 떠나 30여 년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교회와 현실 사회의 장벽과 거리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독교는 기독교회를 위해 있지 않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음을 명각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그는 “교회는 물론 대표적인 기독교 공동체이지만,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소금과 빛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사회로부터 버림 받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권고 이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와 더불어 선하고 아름다운 삶과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그런 마음 밭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됐다. 하늘나라는 노력 없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올해 한국 나이로 99세가 된다.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 시카고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의 연구 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로서 철학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며, 끊임없는 학문 연구와

집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60-1970년대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고독이라는 병>, <영원과 사랑의 대화> 외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진리와 사색거리를 발견해낸 ‘철학에 세이’들은 당시 큰 사랑을 받았고, 최근 재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재출간 봄은 그의 책 <예수>가 다시 출간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시작됐으며, 이 외에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백년을 살아보니> 등이 나왔다. 다음은 김형석 교수와의 인터뷰.

-책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에서는 ‘교리를 넘어 진리로’를 강조하고 계신데, 교리란 무엇이고 진리란 무엇인지요.

쉽게 보면 왜 스님들이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님은 인생을 이야기하니 우리와 공통점이 있지만, 신부나 목사님들은 교리를 말하니깐 그 사람들만의 것이지 우리와는 공통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벽이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와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지,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교리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제일 뚜렷한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도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율법과 계명에 구속받는 게 아니지요. 율법과 계명이 신약에서 교리로 변했지요.

이 말은 교리란 인간 생활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교리에 따라가기 위해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모든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를 교리화시켰었지요. 종교개혁으로 그걸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교리는 축소됐지만, 신학이 나와서 진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무신론자이든 다른 종교를 믿든, 예수님 주신 말씀을 내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교리로 받아들이면 교인이 되어 교회를 따라갑니다. 진리는 인간 전체를 위해 있고, 교리는 기독교를 위해 있습니다. 더 좁아지면 율법으로 가겠지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거의 못 들었을 것입니다(웃음).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관이자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데, 교리로 자꾸 묶어 놓으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가 근본 교리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자꾸 따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니 상하(上下)가 있을텐데.’ 칼빈도 이걸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삼위일체 이야기 자체가 좀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삼위일체를 믿느냐’고 물으니 ‘성경에서 그런 말씀 한 마디도 못 봤다’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믿긴 믿지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 연세대 재직 시절 매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은 감리교 한 감독님이 와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한다. 그러니 예수님도 가루웃다는 어떻게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장로교 목사님이 와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와 감리교 이야기이지, 성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웃음). 그러니 학생들이 제게 와서 어떤 게 옳으냐고 물어요. 뭐랬고 하니, ‘나는 그런 문제 갖고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을 갖고 보니, 예정과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은총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유도 예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리와 진리 사이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하나 추가한다면, 제 신앙의 은인이 목사님 두 분인데, 그 두 분 모두 우리 지성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한 분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 정권 밑에서 일했으니 완전히 교회를 등진 것이었고, 다른 한 분은 기독교 대학 총장으로 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배척당했습니다. 다 실패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두 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20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받는 크리



김형석 교수는 “예수님 말씀이 내 인생관 가치관이 돼야 하는데, 교리로 자꾸 묶어 놓으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스천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목사님은 신앙을 교리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뒤의 두 분은 그 신앙이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이 된 분들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신앙을 진리로 받아들인 평신도들이, 교리에만 평생을 바친 성직자들보다 앞선 것이지요. 목사님들은 좋아하지 않을 이야기이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하십니까?

-기독교 안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문제시하는 신부나 목사님들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을 ‘이중언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닌 줄 알았지만, 저도 알고 보니 그랬습니다. 교회에 설교하러 갈 때는 기도로 준비했지만, 일반 대학이나 사회에서 강연할 때는 준비만 잘 하려 했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20-30년 전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만큼 신앙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교인들보다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더 걱정하고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하러 갈 때나 강연하러 갈 때나 다같이 기도로 준비해야지, 교회 갈 때는 기도하고 바깥에 갈 때는 기도 안 하는 것은 이중언격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설교도 많이 하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보고 ‘아버지 강연하고 설교하시는데 왜 안 가냐고 말합니다. 애들이 들으러 왔습니다. 그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는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같이 살아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했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게 이중언격이지요. 목사님들이 그걸 생각 안 하시니, 점점 더 높은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사회의 잣대와 기독교의 잣대가 달라집니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 세계사는 하나입니다. 세계사를 보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o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도 포함해서 봅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교회사만 따로 떼어서 봅니다. 그렇게 돌로 보니, 역사를 올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영락교회에서 한때 대학생 성경 공부반을 이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 중 하나가 세상 역사를 보려면 밝은 눈으로 봐야 하는데, 종교라는 안경을 끼고, 거기에 기독교라는 안경을 끼고, 개신교라는 안경을 끼고, 장로교라는 안경을 끼고, 또 통합 측이라는 안경, 그리고 영락교회라는 안경까지 끼고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겠는가?' 더더욱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1961년 강화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신앙 좋은 사람은 대학에 가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보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유치원 때는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초등학교 때는 90%, 중등학교 때는 70%로 이것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안 믿는 사람이 60%가 되니, '안 믿고 지옥가느니 믿고 대학 안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이런 '이중인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는 인간 중의 인간입니다. 인간답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못 가져요.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세상에서 봅시다. 원불교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불교 신앙을 가지니, 아기가 아프면 부처님에게 가서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석가님의 뜻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 병원으로 가서 좋은 의사에게 치료받아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 불교는 부처님한테 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에게서 신앙이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를 모르니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는 됐을지 몰라도. 신학자는 공부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예수를 모르면 신앙을 가지기 힘듭니다.

제 천주교인 친구가 프랑스에 기독교 연구하러 갔다가 불교도가 됐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예수님 마음이 석가님 마음보다 너무 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석가님은 인간들에 대해, 사회와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단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책임을 느꼈다.' 그래서 예수는 헤롯왕을 욕

하지 않고 악을 저주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핵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죄악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하버드대 강에서 '너희 선조들이 자본주의를 통해 부자가 됐는데, 그걸 갖고 즐겁게 살자고 하면 아메리카에는 미래가 없다. 세계 가난한 나라에 자꾸 쥐야 한다.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 아메리카는 저절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버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도 소유욕에 빠져선 안 됩니다.

소유욕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는 친구들 중에 신부도 스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님 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님들은 스님이 될 때 인간적인 욕심을 버립니다. 세상 떠날 때 스님들이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출가(出家) 아닙니까. 신부들도 간혹 실수하는 건 있지만, 신부가 될 때는 가정이나 소유욕을 버립니다.

요새 교회에서 세습을 이야기하는데, 신부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건 있어야 합니다. 결혼도 좋고 다 좋지만, 최소한 목사가 되려면 명예나 권력, 소유의 노예가 돼선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이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적어도 내 소유가 내 인생이라는 인생관을 가진 한, 목사가 돼선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교인이 많아졌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좋은 점보다 걱정스러운 점이 더 많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사회는 위로 올라가는데 교회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높으면 예수님의 뜻이 사회로 흘러 내려가는데, 그 반대라면 예수님 믿는 분들도 사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몇 해 전 한 목사가 쓴 칼럼을 봤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한 목사가 캘리포니아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워싱턴 D.C.를 지나고 있으니 창밖을 보십시오. 국회의사당, 백악관, 펜타곤 등이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다 왔을 때 다시 내다보니 대항도 있고 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비행기 타고 내려다 봐도 보일 정도의 큰 교회를 생각했는데, 얼마나 주님 뜻과 어긋난 것이

지 알았습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게 작아야 하고, 교인들을 국회의원이 되고 백악관, 국방부에서 일할 일꾼으로 만들어 보내기 위해 존재해야지 교회가 커지게 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천주교가 그걸 거꾸로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 말씀과 성경에 교리와 전통을 더하고, 교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았지요. 그런데 인문학, 철학과 문학과 역사학이 나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낸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교리화한 구약과 신약을 인문학이 몰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몰려나간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잘못됐다 잘못했다는 차원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둘째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당시 풍자만화를 보면, 바짝 마른 농민이 지게를 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피동피동하게 살찐 세 사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족, 귀족, 신부였습니다. 밑에 이렇게 써 있었지요. '이 가난한 농민이 견딜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꺼내놓은 것이 자유·평등·박애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유·평등·박애입니다. 이것 없는 기독교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 못하는 기독교는 버림받아야지요. 이것을 버린 것이 천주교였습니다. 그걸 밀어낸 것이 인문학이었지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위해 모든 걸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하고 이성과 자유의 가치를 최고로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와 가치로는 개인의 구원도 없고 역사도 불행해지니,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 인간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문학보다 더 높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없는 인간, 인간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정확히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답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히틀러는 하나님 자녀가 못 됩니다.

-교회에서 듣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크게 성공한 한 목사님이 어떤

신문에서 교회 성장 비결을 물으니 '살아서는 전도하고 죽어서는 천당가고, 이 둘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걱정하지요(웃음).

요새 선교사들 많이 보내는데, 예수님 말씀에서 교리를 강요하기보다 봉사하고 교육을 해 주고 병원을 지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전도를 봉사라고 생각해야지, '너희들은 안 믿으니' 위에서 베푸는 것처럼 해선 안 됩니다.

간음한 여인 이야기 같은 것이 왜 소중합니까? 인간의 공감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휴머니티(humanity)를 알아야 합니다. 공감대 없이 자꾸 이야기하면 실패합니다.

유명한 목사가님 한인교회 목회 시절, 고교생 딸이 마리화나 피우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시절 미국에선 그 나이대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완고한 목사가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살해 버렸습니다. '친구들이랑 다니다 그랬구나. 그거 좋은 게 아니야. 한국엔 없고 여기에만 있는 거다' 그 정도면 되는데, '너 크게 죄 지었다'고 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딸을 자살하게 만들었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책에서 신사참배를 고백하셨는데, 오늘날 '친일'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중학교 때 그 문제로 고민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뿌리는 심계명입니다. 심계명의 처음 세 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제외하면, 모두 자연 신(神)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철학도 자연의 질서에 따른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시작돼 모세에게 연결되는 기독교 신앙은 자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정신적인·영적인 신앙이었지요. 그래서 우상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신사참배를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갖고 살면 우상이 없는 사람이고, 바로 못 갖고 살면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지요. '돈이 최고'라는 사람은 신사참배라기보다 현대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지만, 그보다 명예를 높이 보거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목사님들이 학위논문을 표절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모두가 아는 큰 교회 원로 목사가 부목사를 때렸다? 크리스

천에게 폭력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까? 세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간디 선생을 존경하시는데, 간디도 구원받았나요?' 천당 갔다 지옥 갔다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저는 모르고, 다만 간디는 살아있는 동안 기독교 정신에 가장 가까웠던 분입니다. 그 분이 거저 없는 사회, 폭력이 없고 사랑으로 사는 사회를 평생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들이지요. 하나 빠진 것을 이야기하자면, 일본이나 캐나다에 가면 천주교, 성공회와 구세군, 동방정교회는 따로 있는데, 그 밖에 장로교와 성결교, 감리교 등은 하나입니다. 그저 '일본 기독교, 캐나다 기독교'입니다. 제도적으로 하나라기보다,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기도원 같은 곳을 교단에서 갖고 있으면 각 교회들이 다 이용하지, 이 교회 저 교회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작은교회가 만들어진 후 생활비가 없다고 걱정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교단에서 책임져 줘야 합니다. 적어도 사회에 모범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사회가 걱정합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비전이 있으신지요.

신앙인들에게 개인적인 비전을 물으면 '글썄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란 항상 비전을 세우고 사는 존재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 있고 주님의 뜻을 위해 할 일이 있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도 후배 교수들과 모임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국병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를 어떤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제이고, 이런 것이 비전입니다.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 말입니다.

이대웅 기자

신앙생활의 길잡이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대웅 711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국민일보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 연재글을 모았다.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부딪히는 성도의 고민과 궁금증을 성경에서 답을 찾고 정통적 가치 안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러 물음에 관해 진솔한 답을 내놓는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문체는 공감을 자아낸다.

박종순 지음 344면 / 15,000원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맘몬이 지배하는 현실과 맘몬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닌 맘몬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경제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소명을 점검하고 코이노니아적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선교하는 미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운영에 관한 관점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강천 지음 288면 / 12,000원

하나님 나라의 경제!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이강천 지음

교향유형의 신약교회사
중세교회사 I, II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중세교회사 II
대웅 711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중세교회사 I, II
정수영 목사의 교회사 시리즈

중세교회사 1권은 1000년 동안 유럽 세계를 암흑으로 이끌어 간 타락과 부패의 역사를 **박종순** 교황의 역사, 유럽교회의 역사, 주류교회와 다른 소수 교회 역사를 신약교회 사관에 의해 알아보고 교황들이 과연 신앙에 부합한 무리들이었는지 살펴보았다. 2권은 17세기 이내 유럽의 선교 역사, 동방정교회의 역사와 신학, 중세기 수도회 운동, 십자군 전쟁, 중세기 미신 신앙, 스킨 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암흑 속에서 개혁 추구, 분리 교회의 역사 내용을 다뤘다.

정수영 지음 1권 484면 / 23,000원 · 2권 920면 / 40,000원(신국판 양장)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cool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 6 ☎ 747-1004 쿨란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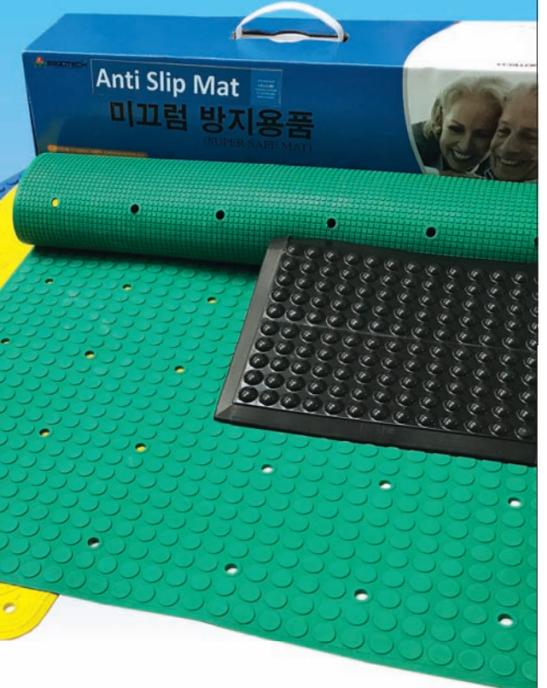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Prevent Fatigue 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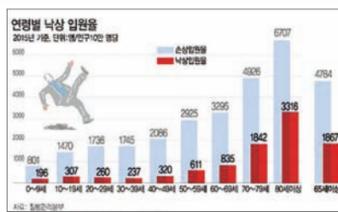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종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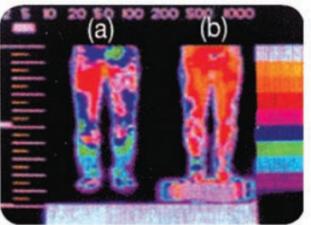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한인 혜택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탐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p>E- MAT</p> <p>피로방지용 사이즈 3ft + 2ft \$123 +tax \$176 30% Off</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p>SAFE KOREA MAT</p> <p>케어프리매트 (Safe Korea Mat) 사이즈 80cm+40cm \$75 \$60 +tax</p>	<p>NEW SUPER SAFE MAT</p> <p>슈퍼케어프리매트 (Super Safe Mat) 사이즈 92cm+42cm \$90 \$72 +tax</p>
	<p>SAFE MAT</p> <p>사이즈 80cm+40cm \$95 \$76 +tax</p>	<p>SUPER SAFE MAT</p> <p>사이즈 3ft + 2ft \$145 \$116 +tax</p>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